

마태복음의 우주론

- 하늘 표상과 상징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

강대훈*

들어가는 말: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우주론(cosmology)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데,¹⁾ 구약과 신약은 우주생성론(cosmogony)보다는 우주의 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우주론은 세계관을 반영한다.²⁾ 성경 저자는 우주론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학적 목적(신약의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등)을 위해 이

* 총신대학교 강사, 신약학.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Heavenly Imagery and Symbolism in Matthew's Gospe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stol / Trinity College, 2012)을 요약·편역한 것이며,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늘 이미지와 하늘 상징주의: 역사적-내러티브 접근," 「한국신약학회 제104차 정기학술대회 논문집」(2013), 104-116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이 다음의 제목으로 출판, 게재 되었다. "마태의 수난 기사(마 26-27장)에 나타난 성전의 하늘 상징성," 「신약연구」12(2013), 7-27; "산상설교에 나타난 하늘의 기능," 「정훈택 교수 퇴임 기념논총: 열매로 알리라」(총신대학교 출판부, 2013), 137-159.

- 1) E. C. Lucas, "Cosmolog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Downers Grove, Illinois: IVP, 2003), 130-131와 R. A. Oden, "Cosmogony, Cosmology," *ABD* 1:1162-1172가 언급한 것처럼 우주론은 우주생성론에 기초한 것이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둘을 분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 2) 고대 근동의 우주론과 구약의 우주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약은 초기부터 우주론에 관심을 보였고 후기로 가면서 발전했을 것이다. Edward Adams, "Graeco-Roman and Ancient Jewish Cosmology," *Cosmology and New Testament Theology*, Jonathan T. Pennington and Sean M. McDonough eds., (London: T & T Clark, 2008), 5-27, (19).

를 사용하므로, 성경의 우주론을 신학적 우주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³⁾ 하늘이나 지하 또는 지옥 여행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우주론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제2성전기 유대 묵시문헌 저자들도 종말론이나 구원론과 같은 신학적 목적을 위해 우주의 구조를 활용한다. 마태복음은 유대 묵시사상을 반영하고⁴⁾ 비가시적 하늘, 음부(11:23; 16:18; 참조, 물[8:32, 눅 8:31]), 지옥(5:22, 29, 30; 10:28; 18:9; 23:15, 33; 참조, 막 9:43, 45, 47; 눅 12:5), 슬피 울며 이를 갈 곳(8:12; 13:30, 41, 50; 22:13; 24:51; 25:30; 참조, 눅 13:28)을 즐겨 사용하면서도, 유대 묵시문헌과 다르게 우주의 구조 자체를 상세히 묘사하지는 않는다. 마태복음은 우주의 구조 묘사를 절제하면서 동시에 천상세계에 대한 힌트를 곳곳에 남기면서 하늘 표상과 상징성을 신학적 주제와 연결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주의 구조와 마태복음 주제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⁵⁾ 하늘은 음부와 지옥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마태의

3) Adams, "Graeco-Roman and Ancient Jewish Cosmology," 5.

4) 마태복음의 묵시적인 특징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D. Sim, J. Pennington, G. Macaskill, D. Gurtner, O. Lamar Cope, D. Hagner, U. Luz, C. Rowland, D. Mathewson, M. J. Suggs, C. Deutsch.

5) 신약에서 우주론이 신학적 목적을 위한 공간적 세팅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보라. 강대훈, "유다서의 우주론," 『신약연구』12 (2013), 875-899;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테스'와 '아뷔소스'의 개념과 하늘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약연구』13 (2014), 183-218; "마태복음에 나타난 최후 형벌의 장소에 대한 연구," 『제48차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정기논문발표회 논문집』(2014), 25-42. 최근 마태의 하늘에 관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한국기독교신학논총』46 (2006), 57-88; 김학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하늘' 가족의 권세와 상과 '하늘나라'," 『신약논단』14 (2007), 1-37; "마태공동체의 '땅'과 '하늘' 사이에 '매고 푸는' 권세," 『한국기독교신학논총』40 (2007), 67-93;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마태복음의 하나님 상(像)의 일면," 『신약논단』15 (2008), 37-67, 정훈택, "하늘에서처럼 땅에 서도-주기도문 중 첫 세 청원의 상관 관계 연구," 『신약연구』10 (2011), 1-24. 구약 연구 중에서, 왕대일은 욥기 38-41장에 기초하여 우주론과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욥기의 저자는 우주의 움직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증언한다고 주장한다.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Canon&Culture』13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3),

하늘 연구는 우주의 나머지 구조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이 목적을 위해 내러티브-역사적-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내러티브 접근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하늘의 역할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며, 필자는 하늘이 내러티브 플롯의 공간적 세팅으로 기능하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하늘은 (내포적) 저자와 (내포적) 독자 사이의 공동 언어/지식으로서 구약과 제2성전기 유대교의 우주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가? 마태의 하늘 이해에 기여한 주요 학자는 페닝턴(J. T. Pennington), 거트너(D. M. Gurtner), 심(D. C. Sim)이다.⁶⁾ 페닝턴은 구약과 유대교의 하늘 언어를 마태복음에 적용했는데, 특히 하늘의 복수형(*ouranoi*)은 비가시적 하늘을, 단수형(*ouranōj*)은 가시적 하늘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페닝턴은 하늘의회(법정), 하늘 상징성, 하늘의 열림 등과 같은 주제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그는 마태복음의 핵심 부분마다 하늘 언어가 쓰인다고 하면서도 복음서 전체를 분석하지 않는다. 거트너는 성전 휘장을 하늘 궁창의 상징으로 이해하면서 휘장의 상징성을 마태복음에 적용한다.⁸⁾ 그는 27:51하-53 연구로 성전의 휘장(하늘의 궁창)이 열려

103-130.

- 6) G. Schneider(1988); K. Syreeni(1990); S. Humphries-Brooks(1989); R. Foster(2002); D. Mathewson(2011); R. C. Branden(2006); C. C. Rowland(1994).
 7) 페닝턴은 하늘의 복수 단수 개념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나라’, ‘하늘과 땅의 대조도 연구해서 유대교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제자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 하늘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Jonathan T. Pennington, *Heaven and Earth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7); idem, “Heaven, Earth, and a New Genesis: Theological Cosmology in Matthew”, *Cosmology and New Testament Theology*, idem, “Dualism in Old Testament Cosmology: Weltbild and Weltanschauung”, *SJOT* 18-2 (2004), 260-277.
 8) Daniel M. Gurtner, *The Torn Veil: Matthew's Exposition of the Death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필자는 성전의 하늘 상징성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심의 기여는 마태의 묵시사상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것, 묵시사상에 있는 인생의 운명을 마태복음에 적용한 것, 하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의 종말론적 전쟁을 분석한 것이다.⁹⁾ 그러나 심은 이원론과 하늘의 계시적 기능 사이의 관계나 인생의 운명과 운명의 장소(우주론)가 강조되는 다섯 강화를 체계적으로 살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들이 배경 연구에서 간과한 부분을 폭넓게 연구하고,¹⁰⁾ 복음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하늘의 기능을 연구할 것이다.¹¹⁾ 또한 마태 자료에서 하늘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1. 구약에 나타난 하늘 표상과 상징성

구약에 나타난 하늘 표상과 상징성은 마태복음의 하늘 이해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사용된다(예. 하늘법정, 성전의 하늘 상징성 등). 학자들은 구약의 우주 구조를 이중(하늘-땅/바다[음부가 땅에 포함])이나 삼중

9) David C. Sim, *Apocalyptic Eschatology in the Gospel of Matth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0) 본 논문에서 구약과 유대교의 하늘을 위해 주로 다룬 저자들은 다음과 같다: G. W. E. Nickelsburg, C. C. Rowland, R. J. Bauckham, C. Houtman, J. E. Wright, M. G. Kline, J. D. Levenson, M. Himmelfarb, J. B. Russell, N. T. Wright, A. Y. Collins, M. N. A. Bockmuehl, A. F. Segal, J. J. Collins, P. Gooder.

11) 본 논문은 주석적 작업을 내러티브 접근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삼았고, 여기서 얻어낸 하늘과 마태신학 사이의 관계는 29개 본문 주해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내러티브(1-2장); 둘째 내러티브(3:1-12, 13-17; 4:1-11; 5:11-16; 6:1-18; 7:21-23); 셋째 내러티브(8:11-12; 9:1-8; 10:32-33, 34-39, 40-42); 넷째 내러티브(11:25-30; 12:17-22; 13:24-43, 44-52); 다섯째 내러티브(16:17-19, 27-28; 17:1-8; 18:10-14, 15-20, 21-35); 여섯째 내러티브(19:27-30; 22:1-14; 24:29-31; 25:31-46); 일곱째 내러티브(26:57-68; 27:51-54; 28:16-20).

(하늘-땅/바다-음부)으로 이해한다. 이 중에서 하늘(שָׁמַיִם)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구약은 '가시적인 하늘'과 '신적인 영역' 사이를 구분하지 않기도 하고, 하늘을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하늘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고 모호한 이유로 체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¹²⁾ 이처럼 구약의 하늘이 다양하고 때로는 모호하게 표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시적 하늘과 비가시적 하늘로 구분하는 작업은 가능하다.¹³⁾ 물리적인 하늘은 창조의 공간이며, 땅과 함께 사라질 특성을 가진다(시 102:25-26; 욥 14:12). 한편, 하늘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창 1:8) 궁창(שָׁמַיִם)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며, 하늘의 별들이 궁창에 박혀 있다(창 1:6-20). 하나님의 보좌는 궁창 위에 있고 궁창은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다(겔 1:22).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느 비가시적 하늘을 간단히 살필 것인데, 우리는 하늘의회, 성전의 하늘 상징성, 하늘과 땅의 관계성을 탐구함으로써 비가시적 하늘을 분석할 수 있다.

1.1. 하늘의회¹⁴⁾

구약에서 하늘은 하늘의회가 열리는 곳이다. 로빈슨(H. W. Robinson)이 하늘의회를 탐구한 이후,¹⁵⁾ 구약 학자들은 주로 고대근동

12) 예를 들어 후트만은 이스라엘의 우주관을 체계화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세계관은 이원론적이라고 주장한다. Cornelius Houtman, *Der Himmel im Alten Testament: Israels Weltbild und Weltanschauung* (Leiden: Brill, 1993), 283-317 (77).

13) 장엄복수 שָׁמַיִם이 하늘의 이중 구조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14) 하늘(신의)의회, 하늘(신의)총회, 하늘궁정, 하늘법정은 같은 실체를 기능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명칭들이다.

15) "The Council of Yahweh", *JTS* 45 (1943), 151-57. 하늘의회 of 전형적인 묘사와 기능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기민석, "천상의회의 전형적 기술에 대한 관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1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05) 15-14;

의 전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필자는 이런 연구 흐름을 인지하면서 ‘하늘의회의 묘사와 기능’에 관심을 두고 주요 본문(왕상 22:19-22; 욥 1-2; 시 82; 사 6:1-13; 단 7:9-14; 속 3:1-10)과 관련 본문(시 89:7; 사 40:1-11; 42; 렘 23:18; 겔 1:1; 암 3:7; 속 6:5)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1. 하늘의회 묘사

구약에서 ‘하나님의 회’(עֲדַת־אֱלֹהִים, 시 82:1)와 ‘거룩한 자의 회중’(קְדוֹשֵׁי־רוּחַ, 시 89:7)의 ‘회’(עדה)나 ‘회중’(רוח)등의 용어는 하늘의회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용어들 없이도 하늘의회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단어 나 구가 사용되기도 한다. ‘앉다’(שָׁב) [왕상 22:19; יתָב [단 7:9]), ‘서다’(עָמַד 22:21; 속 3:1-7에서 6회 사용; נָצַב [시 82:1; קָבַב 단 7:10]), ‘나아가다’(יָצַב [욥 1:6; 2:1; קָבַב [단 7:13]) 등의 동사들이 ‘앞에’(לְפָנַי [왕상 22:21; 속 3:1, 3, 4]; קָבַב [단 7:9, 13]) על [(‘옆에’ 또는 ‘앞에’[왕상 22:19; 욥 1:6; 2:1])과 같은 전치사들과 함께 쓰인다. 하나님은 하늘의회의 중앙인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주변이나 앞에서 서 있다(왕상 22:21; 욥 1:6; 2:1; 사 6, 40, 42; 단 7:10; 속 3:1, 3, 4; KTU 1.2.i.20-21).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지상의 일을 보고 하거나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다. 하늘의회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다(욥 1:6; 2:1; 속 3:1). 이야기는 ‘소리를 하늘의회의 결정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사 6, 40, 42장). 하늘의회는 ‘지존자의

M. S. Heiser (2004, 2008); J. S. Ackerman (1966); F. M. Cross (1953, 1973); E. T. Mullen (1980); P. D. Miller (1968, 1986, 1987, 2000); C. C. Rowland (1982); M. S. Smith (2002); J. H. Walton (2006); J. E. Wright (2002); E. C. Kingsbury (1964); R. P. Gordon (2006); J. F. Ross (1962); B. D. Sommer (2009); W. L. Moberly (2006). 2차 자료와 평가에 대해서는 Kang, "Heavenly Imagery and Symbolism," 37-62를 보라.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의 총회' 등으로 불린다.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동사는 복수형이다(사 6:8; 40:1, 3, 6). 하늘의회 장면에서 동사+ 전치사(עַל לְפָנָיו)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 준다. '앞에 서다(עָמַד עִמָּךְ 단 7:10)와 '앞에 나아가다(עָמַד עִמָּךְ 7:13)의 아람어 전치사 עִמָּךְ은 마태의 하늘의회(법정)를 상상하게 하는 emprosqen('앞')의 배경이다.

1.1.2. 하늘의회의 기능

하늘의회를 묘사하는 여섯 개 본문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는데, 하늘의회의 주요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의회 장면은 지상의 독자들이 '하늘의 관점'을 갖도록 의도한다. 둘째, 하늘의회의 주요 기능은 재판이나 심판이다.¹⁶⁾ 구약에서 하늘의회의 공통적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앉거나 서 계시고, 하늘의회는 그의 결정을 받고 집행하기 위해 모여 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신다. 셋째, 선지자들이 하늘의회를 보거나 그 결정을 듣는 것은 그들의 권위와 전달하는 계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참조. 렘 23:18-22).

16) 왕상 22:19-22에서 여호와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의회를 모으신다. 욥 1-2에서 사탄은 욥을 기소하는 검사로 등장하며, 여호와와 욥의 순전함을 선언하신다(1:8; 2:3). 시 82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하늘의회가 소집된 점을 명시한다. 사 6장에서 하늘의 왕은 심판의 평결을 내리며, 심판 기능은 사 6장에 있는 심판 모티프들과 6장과 넓은 문맥(1-5장, 7-12장)과의 관계로 입증된다. 하늘의 평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나(10-13절 상)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13절 하). 단 7:9-14은 하늘법정을 보여준다. 짐승들은 심판 받지만 인자 같은 이는 신원 받는다. 숙 3:1-7의 등장인물들은 하늘법정에 참여하고 있다. 여호와(재판장), 여호와와 천사(대변인과 재판장 역할 수행), 사탄(검사), 대체사장 여호수아(피고), 법 집행을 위해 소집된 법정의 참여자들.

의 수평적인 구조(바깥뜰→성소→지성소)에 상응한다.²¹⁾

1.3. 하늘과 관련된 주제들

하늘은 천막이나 휘장과 같고(잠 9:8; 시 104:2; 사 40:22; 42:5; 45:12; 48:13; 51:16; 렘 10:12; 51:15; 숙 12:1), 문(시 78:23; 창 28:17)과 창문(창 7:11; 8:2; 왕하 7:2; 사 24:18; 말 3:10)을 갖고 있다. 하늘이 닫히면 누구도 하나님의 거처에 접근할 수 없고, 거처를 볼 수도 없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도 없다. 하늘의회의 장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전제로 한다(왕상 22:19; 사 6:1; 숙 3:1; 겔 1:1; 단 7:9).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사자들을 보내신다(예. 사 24:18-19; 64:1; 숙 1:7-17; 6:1-15).

2. 제2 성전기 유대교의 하늘 표상과 상징성

2.1. 하늘의회와 천상세계

2.1.1. 유대 (위경) 묵시문헌

구약과 비교해서 제2성전기 유대 묵시전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늘과 인생의 운명에 대한 관심과 상세한 묘사다. 이 시기에 형벌의 장소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커졌는데 이것도 개인의 운명에 대한 강조에 기인한다. 제2성전기의 인생의 이중 운명과 이중 장소에 대한 묘사는 기록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AD 70년)을 기준으로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J. H.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ll.: IVP, 2009), 80-81; M. G. Kline, "Investiture with the Image of God", *WTJ* 40 (1977/78), 38-62(45).

(1) AD 70년 이전의 묵시전통

「파수꾼들의 책」(1 En. 1-36, BC 2세기 중반)에서 하늘은 최후심판을 결정하는 법정과 같다(1-5). 하나님은 의인들이 땅에서 올리는 호소(6:1-8:4)를 받아 하늘에서 판결하고(9:1-10) 천사들을 땅으로 보내신다(10:1-11:2). 14장의 하늘보좌 방은 성전이면서 법정이다(참조. 단 7:9-14). 하늘법정에 이어 이중 운명이 묘사된다(17-36장). 의인들은 낙원에서 상을 받을 것이지만 악인들은 형벌의 장소(예. 무서운 계곡)에서 고통과 고문을 당할 것이다(22:1-14; 24:1-7; 25:1-7; 27:1-4; 31:1-32:5). 「빛의 책」(1 En. 72-82, BC 3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이다(81:1-4).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82:1-20). 「꿈의 책」(1 En. 83-90, BC 2세기)에서 창조주는 의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악인들을 불타는 심연(abys)에 던지실 것이다(88:1-3; 90:24-26).²²⁾ 수천사들은 검사들로서 땅의 일들을 하늘법정의 재판관에 보고 한다(89:59-90:38). 「에녹의 편지」(1 En. 91-105, BC 2세기)에서 하늘은 법정처럼 되고, 악인들은 기소를 당해 의인들의 손에 형벌 받을 것이다(94-105). 천사들은 악인들을 형벌의 장소로 모으고 의인들을 심판에서 보호한다(100:1-10). 의인들은 하늘의 상을 받으며(103:3-4) 별처럼 빛날 것이다(104:2). 제1에녹서의 마지막 책인 108장에서 악인들이 바깥 어둠에서 울게 될 것이지만

22) 끝(밑바닥)이 없다는 뜻의 '아뷔소스'(abussoj)는 칠십인경에서 최소 34회 등장하는데 30회 정도는 대부분 히브리어 '테흠'(עִיף)을 번역한 단어다. 'Abyss'는 '아뷔소스'의 영어식 표현으로서 영어번역본은 '아뷔소스'를 주로 '깊음'과 관련된 용어로 번역한다(예. 'the deep', 'the depth', 'deep'). 제2성전기 유대교의 '아뷔소스'는 구약의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예. 홍해[Wis. 10:19]), 악한 천사들이 감히 감옥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1 En. 10:11-13; 54:4-6; 60:7; 88:3; 90:24-27; 참조. 1 En. 10:4-6; Jub. 5:6-10(천사들이 "땅의 깊은 곳"에서 형벌 받음; 참조. 베헤스 2:4). 아뷔소스는 최후심판 전까지 감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하데스(음부)와 비슷하지만, 하데스보다는 불의 이미지가 강하고 주로 귀신들이 감히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아뷔소스의 유대교 배경에 대해서는 강대훈,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데스'와 '아뷔소스'의 개념"을 보라.

땅보다 하늘을 더 사모한 의인들은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108:12-15). 「에녹의 비유들」(1 En. 37-71, BC 1세기-AD 1세기) 중 첫 번째 비유(38-44장)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늘법정의 판결과 상/벌의 장소를 설명한다. 두 번째 비유(1 En. 45-57)에서 의인들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고(47:1) 거룩한 자들이 압제자들의 형벌을 요청하면(47:2)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다(47:3-4). 인자는 의인들을 신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48:1-3, 4-10; 49:1-50:5). 의인들은 회복된 땅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형벌의 장소로 보내질 것이다(50-51장; 54:4-6). 하늘법정의 결정에 따라 권세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채워진 스올에 보내질 것이다(세 번째 비유[1 En. 58-69]). 의인들과 선택 받은 자들은 인자와 함께 먹고 영광과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다(62:13-16). 「희년서」(BC 2세기 중반)는 부활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상과 벌을 강조한다(*Jub.* 23:27-31; 단 12:1-3). 의인들의 뼈들이 땅에서 쉬는 동안 의인들의 영들이 (하늘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스바냐의 묵시록」(BC 1세기-AD 2세기 중반)에서 하늘문은 법정이 된다(*Apoc. Zeph.* 3:6-9). 의인들은 아름다운 하늘의 성(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2:7; 3:1; 5:1-6), 악인들은 형벌의 장소로 보내질 것이다(2:8-9). 천사의 옷을 입을 스바냐는 배를 타고 하늘의 성으로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엘리야, 다윗과 친구로 대화한다(8:1-3; 9:2, 4-5). 불경건한 자들을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심연과 음부)에 심판의 날까지 갇힌다(4:1-7; 6:15-17; 10:3-9).²³⁾ 죄인들은 바다에 빠지고 고문당한다(10:3-9). 「레위의 유언」(BC 2세기)에서 승천한 레위는 세 하늘을 본다(*T. Levi* 2:1-5:3): 악인의 죄로 어두운 첫째 하늘, 하늘 군대가 심판을 위해 있는 둘째 하늘, 지성소가 있는 셋째 하늘. 레위는 하늘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5:1-2:

23) 음부의 헬라이어 표현인 '하데스'(Ἅιδης)는 히브리어 '스올'(שׂוֹל)을 칠십인경에서 번역한 용어다. 제2성전기 유대묵시 문헌에서 음부는 심판 받은 악인들의 운명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무저갱(또는 심연)과 동일 본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스올과 하데스에 대한 구약과 제2성전기 배경에 대해서는 강대훈,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데스'와 '아뷔소스'의 개념」을 보라.

8:2-3). 「모세의 유언」(AD 1세기 초반)에서 하늘은 고난 받는 의인들을 위한 장소다. 탁소(Taxo)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으로(*T. Mos.* 9:5-10:2), 사탄은 파멸당하고 천사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10:1-2).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들이 있는 곳으로 올리시지만, 악인들은 게헨나에서 고통당할 것이다(10:3-10).

(2) AD 70년 이후의 유대전통

「제4에스라서」(AD 1세기 후반)에서 의인들은 하늘의 낙원(4 *Ezra* 7:47, 51; 8:1-3; 9:14-15),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7:26; 참조. 8:52; 10:27, 42, 44, 54; 13:36)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게헨나의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7:26-44). 율법을 지킨 의인들은 천사처럼 변하여 낙원에서 쉽고 고요함을 맛볼 것이지만(7:36, 45, 85, 99; 참조. 3:6; 7:38, 75, 85, 95, 123; 8:52), 악인들은 죽음과 함께 이미 고통을 경험한다(7:75-101). 에스라는 최후심판 때까지 하늘에 머물면서 메시아와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14:49). 하늘법정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7:46-61, 87). 「제2(시리아)바룩서」(AD 1-2세기)에서 다가 올 세상(15:8; 44:15)은 의인들을 위해 준비된 낙원이다(51:11; 59:7).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하늘성전에 옮겨졌고 회복될 것이다(4:1, 5; 6:8-9; 32:5). 토라를 지킨 의인들은 하늘의 천사와 별처럼 변하고 조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51:1-13). 의인들의 얼굴을 천사들보다 뛰어나며(51:12), 하늘창고에 쌓인 상을 받게 될 것이다(14:12-13; 24:1; 44:13; 44:14; 50:4-51:1; 52:5-7; 84:6). 악을 행한 자들은 괴상한 얼굴로 고통을 겪고(30:5; 51:2-6; 54:14) 형벌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44:15; 48:39; 59:3; 64:7; 66:3, 4; 85:13). 「아브라함의 묵시록」(AD 2세기)에서 천사 야오엘이 아브라함을 비둘기의 날개에 태워 천사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일곱 번째 하늘에 데리고 간다(*Apoc. Ab.* 15:4; 19:4).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의인들은 회복된 성전에 모이고

(29:18) 천상에서 즐길 것이다(31:4). 그러나 악인들은 심연에서 고통하고(21:3) 의인들을 괴롭힌 이유로 음부(Hades)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31:2-3). 「제3바룩」(AD 2세기)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상이 의인들을 기다린다. 첫째와 둘째 하늘에는 괴물들이 거하며(3 Bar. 2:7; 3:3) 셋째 하늘에는 음부(Hades)가 있다(4:3; 5:1-3). 넷째 하늘에는 의인들의 영혼들이 합창 속에서 살아간다(10:1-9). 의인들과 악인들은 죽음 즉시 각각 찬송하고 고통당한다(10:7). 하늘의 문이 열리면 다섯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의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11:1-9) 열린 문들을 통해 선행을 받으신다(2:2; 3:2; 4:2). 「제2에녹」(AD 1세기)은 일곱 하늘을 묘사하는데 둘째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천사들을 가두는 장소이며(2 En. 7:3) 셋째 하늘에는 의인들을 위한 낙원이 있다(8:8; 9:1). 셋째 하늘의 북쪽에 있는 형벌의 장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들과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자들을 고문한다(10:1-5). 여섯째 하늘은 하늘법정으로서 수천사들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19-20장). 일곱 번째 하늘 계시는 하나님은 미가엘에게 명령하여 에녹에게 빛보다 더 빛나는 기름을 바르게 하고 영광스런 옷을 입힌다(22:8-10). 「아브라함의 유언」(AD 1-2세기)에서 하늘의 문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정이다(T. Ab. 10:15; 12:15; 13:4, 8A). 천사들은 의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저울로 달아서 구원하지만 악인들을 불타는 채찍으로 벌한다(12:1). 의의 천사는 불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의인들의 장소로 이끌지만, 심판의 천사는 악인들을 형벌의 장소로 보낸다(13:12-13A; 14:8A). 미가엘과 많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신성한 세마포로 입혀 의인들을 위한 장막과 저택들이 있는 낙원으로 인도한다(20장).

2.1.2. 사해사본

(1) 하늘의회

사해사본의 일부는 하늘을 신의 의회가 모이는 곳으로 묘사한다(4Q403 2 i 6-12; 4Q405 22; 참조. 켈 1, 10장). 하늘의회의 구성원들은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다(예. 4Q400 1 ii 19-20). 하늘의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심판이다. 「거인들의 책」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준다(4Q203, 4Q530-532, 6Q8, 1Q23, 2Q26). 11Q 2 11에서 멜기세덱이 재판관으로 나온다(참조. 11Q13 2 10-14; 시편 82:1-2). 「전쟁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은 최후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하늘의회를 군대로 소집하신다(1QM6 16-7 9). 하늘군대가 거룩한 백성들을 도우려고 내려 올 때 반역자들은 스올에서 파멸당하고 불타게 될 것이다(4QM^a 1-3; 8-10 i 15). 네 번째 안식일 노래에서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회의 구성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4Q401 1-2) 강력한 군대로 소집되어 반역의 무리들(의회)에 맞서 전쟁을 벌인다(4Q402 1). 다섯 번째 안식일 노래에서 마지막 날에 천사의 전쟁이 벌어지며(4Q402 3-4)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 군대다(4Q402 3-4 10). 요약해보면, 하늘의회는 예배공동체 이면서 심판을 위해 소집되어 군사행위로 심판을 집행한다.

(2) 하늘과 인생의 운명

사해사본에서도 하늘은 의인들의 보상을 받는 장소로서 악인이 형벌을 받는 장소와 대조된다. 「공동체 규율」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복을 받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1QS 4 6-14).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의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벌을 받아 바깥의 어둠에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1QS 4 13). 「감사의 찬송」은 악인이 형벌의 장소(1QH^a 11 16-22; 19 10-14), 구체적으로는 스올(Sheol)이나 아바돈(Abaddon)에 가게 된다고 묘사한다((1QH^a 11 6-18; 참조. 4Q491 8-10 1). 의인들은 스올에서 구원받아 천상세계로 올라가며(1QH^a 11 19) 정결하게 된 영은 하늘의 아들들과 연합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1QH^a 11 22).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상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는 것으로도 표현된다(4Q521 2, 7; 참조. *Ascen. Isa.*

9:24-26).²⁴⁾ 「전쟁 두루마리」에서 화자는 천상의 존재가 되어 신들의 회중(하늘의회)과 어울린다(4Q491 11 i 8-15). 의인들은 하늘에서 거룩하게 빛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될 것이다(1QM 7 1-5). 의인들의 신분을 천상의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연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1QS 11 5-8). 사해 공동체는 하늘의회의 구성원들이 현재 그들과 함께 있음을 믿었다(1QS^a 2 8-9). 이미 지상 공동체에 거하고 있는 메시아적인 대제사장은 천사처럼(또는 천사로) 변한다(1QSb 4 22 - 5 19; 1QH^a 11 19-23; 19 10-14).

2.1.3. 요약

위경의 유대 묵시전통에서 하늘의회의 주요 기능은 재판이며, 이중 운명(종말론)과 이중 장소(우주론)가 강조된다. 상반되는 운명과 장소가 바로 하늘의 비밀로서 독자들에게 선행을 촉구한다. 심판의 시기와 관련하여, 초기 묵시전승은 최후 운명을 강조하는 반면, 후기 전승은 죽음 이후에 곧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묘사한다.²⁵⁾ 하늘이 다층으로 묘사되는 경우에는 가장 아래층 하늘은 악인들이 가야 할 형벌의(또는 형벌의 준비) 장소가 되고(*T. Levi 3; 2 En. 8-10; 3 Bar. 4-5*) 가장 위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사해사본에서 하늘은 비밀이 숨겨 있고 운명을 판결하는 하늘의회가 있는 곳이다. 사해사본의 특징은 하늘의회와 지상 공동체 사이의 현재적 연합으로, 연합은 의인들이 받을 상이며, 이미 받고 있는 상이다. 그리고 쿵란공동체는 천사처럼 또는 천사로 변화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둔다. 이처럼 유대 문헌에서 하늘은 계시적이고 범정적인 역할을 하며, 의인들의 갈 장소로서 악인을 위해 준비된 형벌의 장소와 대부분 함께 등장한다. 우주의 이중 구조(상과 별의 장소: 우주론)는 인생의 이중 운명(종말론)을 위해 사용된다.²⁶⁾

24) J. J. Collins, *Apocalypticism in the Dead Sea Scroll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146.

25) Richard Bauckham, *The Fate of the Dead* (Brill, Leiden: 1998), 1.

26) 제2성전기 유대 묵시문헌과 사해사본에 나타난 하늘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2.2. 성전의 하늘 상징성

구약과 비교할 때 제2성전기 유대교는 하늘의 성전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한다.²⁷⁾ 성전은 소우주다.²⁸⁾ 성전의 휘장은 하늘과 우주를 상징하며 (Ant. 3:132; J.W. 5:212-213; Mos. 2:85-87; QE 2:85-87), 하늘과 이 세상을 분리하는 궁창과 같다(QE 2:91).²⁹⁾ 지성소는 인간의 접근을 금지하는 영역인 하늘을 가리킨다(Ant. 3:180-181; 참조. 3:123). 대제사장은 소우주이며 그의 의복이 이 사실을 알리며(Ant. 3:184, 186; Spe. 1:82-97; Mos. 2:109-135),³⁰⁾ 세마포 속옷은 천상 존재들의 신분과 관련된다(2 En. 22:8, 10; Asc.Isa. 8:14-15; 9:2-9).

-
-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늘은 낙원(예. 1 En. 24-25; 31-32; 2 En. 8-10; 9:1; 4 Ezra 7:36, 8:1-3; 9:14-15; 2 Bar. 51:11; 59:7; T. Ab. 11:9-10 A; 20:10-14A); 다가 올 다른 세상(예. 4 Ezra 7:47, 51; 8:1-3; 2 Bar. 15:8; 44:15); 천상의 도시(또는 하늘의 예루살렘: 예. Apoc. Zeph. 5:1-6; 9:4-5; 4 Ezra 7:26; 8:52; 10:27, 42, 44, 54; 13:36; 2 Bar. 4:1; 6:9);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 성전이 있는 곳(하늘 보좌: 1 En. 14:8-23; 47:3-5; 60:1-3; 61-63; 81:1-2; 103:2; 하늘 성전: 1 En. 87:1-3; T. Levi. 2-5; 2 Bar. 4:5; 6:8-9; 32:5; 3 Bar. 11); 하늘의회 또는 하늘법정이 소집되는 영역(예. 1 En. 6-8; 8:4; 9:2-4, 10; 13:3; 14; 45; 52; 60; 69; 81:1-5; 89:61-77; 90:1-17; 90:20-26; 97:6a; 98:4-8; 99:3; 103:1-3; 104:7-8; 106:19; 108:2; Apoc. Zeph. 3:8-9; 10:11; 2 En. 19-20; 참조. 40:13; 52:15; 65:4; T. Mos. 9-10; 4 Ezra 7; 2 Bar. 50-51; T. Ab. 7:11; 8:1; 9:7; 4Q203, 4Q530-532, 6Q8, 1Q23, 2Q26; 4Q530 2 ii 16-20). 그리고 하늘의 보상을 여러 형태로 설명한다: 하늘의 상(1 En. 82:1-20; 103:3-4; T. Levi 3); 하늘의 창고(2 Bar. 14:12-13; 24:1; 44:13; 44:14; 50:4-51:1; 52:5-7; 84:6; 참조. 마 13:44-46); 천상의 존재로 변형(예. 1 En. 104:2; 108: 12-15; 4 Ezra 7:97, 125; 2 Bar. 51:10; 참조. 4 Macc 17:4-6; Dan 12:3); 천사의 옷을 입음(예. Apoc. Zeph. 8:1-3; 2 En. 22:8-10; T. Ab. 20:10-14 A; 참조. 1 En. 62:16); 하늘에 이름이 기록됨(예. 1 En. 104:1); 하늘의 기쁨을 누림(예. Apoc. Ab. 31:4); 하늘 보좌에 앉음(예. 4Q521 frags. 2, 7. 참조. 마 19:28; 눅 22:30; 계 3:21; 20:4; Ascen. Isa. 9:24-26).
- 27) 1 En. 14; 87:1-3; T. Levi 3:4-8; 5:1-2; 8:2-3; T. Mos. 10; 2 Bar. 4:1-5; 6:8-9; 32:5; 3 Bar. 11; 4Q400-407.
- 28) Mos. 2:74-76, 88, 98, 101-5; Spec. 1.66-67; Plant. 47-50.
- 29)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2004), 46; Gurtner, *The Torn Veil* (2007), 93. Tar. Rab. 26:9; Num. Rab. 12:16 on Num 7:11.
- 30)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2004), 39; Davila, 앞의 논문(2002), 4.

2.3. 하늘 관련 기타 주제들

유대교 문헌에서 하늘의 문들이 열리는 것은 하늘의회나 성전이 지상의 공동체나 성전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땅에서 하늘로’→‘하늘에서’→‘하늘에서 땅으로’(1 En. 6:16; 47:51; 83:90; 104). 하늘의 문들은 너무 크고 두껍고 넓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들만 열 수 있다(3 Bar. 2:5; 11:2; 참조. 마 16:19). 하늘 문이 열리면 이중 운명과 이중 장소의 비밀이 계시된다(*T. Ab.* 10:15A; *Apoc. Zeph.* 5:1-6; 10-11; *T. Levi* 5:1-2). 목시전승에서 천상에서 ‘앞에 서다’는 하늘의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가리킨다(1 En. 14; 40:1; 41:1-9; 46:5; 48:1-3, 4-10; 49:1-4; 62:6-13; 2 Bar. 21:4-6; *T. Ab.* 7:11; 8:1; 9:7). 천상의 존재들은 하늘 군대로(4Q402 1; 4Q530 2 ii 16-20), 또는 제사장들로(4Q403 1 ii 6-12; 4Q405 22)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악인들은 최종 판결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1 En. 52:1-9; 62:9-12; 63:1-12; 4 Ezra 7:28-61, 87; 참조. 마 25:32). 「에녹의 비유」에서 에디오피아어 ‘부정하다’(arneomai, 1 En. 45:1-2[x2])와 ‘시인하다’(amna, omologew, 63:5, 7, 9)는 전치사 ‘앞’(qedmehu/baqedma/baqedma, 52:6[x3])과 함께 법정 용어로 쓰인다(예. ‘앞에서 부정하다’[kehda baqedma]; 참조. 마 10:32-33).³¹⁾

3.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늘 표상과 하늘 상징성

최근에 마태복음의 하늘에 관한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마태의 하늘에 대한 탐구가 비교적 미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하늘이’ ‘하나

31) George W. E. Nickelsburg and James C. VanderKam, *1 Enoc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noch Chapters 37-82* (Minneapolis, Minn.: Fortress Press, 2012), 149, 192-193.

님의 대용어 또는 완곡적 표현이라는 전제였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을 51회, ‘하나님의 나라’를 4회 사용하고 있으며, 유대교의 하늘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용어로 쓰인 것은 아니다.³²⁾ 따라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늘’이나 마태복음에만 사용되는 하늘 관련 표현(예, 하늘나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등을 구약과 유대교 배경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마태는 유대 묵시사상을 반영하는 본문에서 하늘 언어를 즐겨 사용하고, 하늘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늘을 상징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용하여 본문을 극적으로 전개하고 본문의 주제를 두드러지게 한다. 마태복음을 전체로 읽는 내러티브 접근을 위해서 필자는 7개의 내러티브 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의 주제에서 하늘의 기능을 연구할 것이다.³³⁾

첫 번째 내러티브 단락(1-2장)의 주제는 아기 예수의 기원(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곳이다. 중개자들은 하늘의 뜻을 전하려고 내려온다. 신약에서 ‘꿈(onar)과 ‘꿈에(kat vonar)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 신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꿈과 하늘의 계획을 알리는 천사가 함께 사용되는 이유는

32) 하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위해 완곡어법으로 사용되었다는 학자들의 합의에 대한 비판과 하늘의 단수/복수형에 대한 내용으로 Pennington, *Heaven and Earth*, 13-38(완곡어법에 대해서), 99-162(하늘/하늘들에 대해서)을 보라. 이를 위해 페닝톤은 지난 백년 가까이 학자들이 완곡어법의 근거로 삼았던 구스타프 달만(Gustaf Dalman)의 입장에 지나는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한다.

33) 마태복음을 구속사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거나(1:1-4:16; 4:17-16:20; 16:21-28:20), 13장을 중앙에 두고 교차대구 구조로 이해하거나, ‘내러티브-강화의 반복으로 구분하는 관점 중에서, 논문은 세 번째 입장을 취한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1-2장)와 수난-부활(26-28장)은 각각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이며, 내러티브-강화 묶음이 다섯 덩어리를 이룬다: 산상설교(5-7장), 선교강화(10장), 천국비유강화(13장), 공동체강화(18장), 종말론적 강화(24-25장). 강화는 내러티브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에, 내러티브-강화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엄밀한 의미의 강화’는 편지상 강화로 부르는 부분과 다르다(5:3-7:27; 10:5-42; 13:3b-50; 18:1-35, 24:1-25:46). 다섯 개의 강화는 최후 심판의 주제로 끝을 맺고 하늘 이미지(예, 하늘법정)가 사용된다(7:13-27; 10:40-42; 13:47-50; 18:21-35; 25:31-46).

목시와 하늘을 공동 언어로 공유하는 독자들에게는 가장 신뢰할만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단 4; 7; 10장; 스투 3장; 1 En. 22:1-14; T. Levi 2:4-6; 2 En. 1:8; 4 Ezra 12:10-38; 2 Bar. 36-76). 꿈-천사의 결합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별도 하늘에서 내려와 탄생 기사의 주제인 예수의 기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다(2:1-12).

두 번째 내러티브 단락(3-7장)의 주제는 하늘나라의 의다. 예수는 의의 모범으로서(3-4장) 의를 가르친다(3-7장). 세례 기사(3:1-17)에서 하늘은 요한과 예수의 정체성을 알리는 곳이다. 3:3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40:3의 합창(1-2절), 독창(3-5절), 익명의 소리(6-8절) 중 두 번째 소리를 대표한다. 요한은 하늘의회에서 울렸던 소리(fwnh. bowhtoj, 사 40:3상 LXX)를 나타내므로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진정성과 권위를 지닌다. 이어 하늘의 뜻에 순종한 아들의 세례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이 열려 음성이 들렸다(3:15-17; 시 2:7; 사 42:1). 하나님은 하늘의회의 결정을 집행하도록 종을 보내는데(42:1, 3, 4), 아들이면서 종인 예수님은 심판자로 왔으나(마 3:11-12)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 순종한다. 시험 기사(4:1-11)는 욱기 1-2장의 하늘의회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시험을 이긴다. 첫 번째 강화인 산상설교(4:23-8:1)에서 하늘의 공간적이고 법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³⁴⁾ '하늘의 상'(5:11-12)은 하늘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제자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된 보상이다. 의인들은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에서 종말론적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심판의 날에 하늘 아버지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34) Pennington, *Heaven and Earth*, 200-202. 마태복음에서 인생의 운명이나 천부와 관련하여 "하늘에"("하늘들에"[en toij ouranoi] 또는 "하늘에"[en ouranw])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청중이 생각한 하늘은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거하는 영역이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복수형은 보이지 않는 천상을, 단수형은 가시적인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과 땅"(관사-하늘-kai-관사-땅)에서 하늘의 단수형은 가시적인 하늘이지만, "하늘에"와 "땅에"를 대조시킬 경우에(en [tw] ouranw/ epi. [thj] ghj) 쓰인 단수형은 땅과 대조되는 천상의 영역이다.

행위의 중심을 사람들 앞에 두었는지 하나님 앞에 두었는지 재판하실 것이다(6:1-18). 의인들은 천상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6:10). 산상설교는 심판의 주제로 끝을 맺고 하늘법정의 그림이 내포되어 있다(7:13-27). 마태는 하늘의 그림으로 하늘나라의 의를 행하도록 한다.

세 번째 내러티브 단락(8-10장)의 주제는 예수의 권위(9:6, 8)에 대한 것이다. 유대 묵시전승처럼 마태는 운명의 대조를 장소의 대조로 강조한다. 로마 백부장과 같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하늘잔치에 앉게 될 것이다(8:10-12).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누리게 될 하늘잔치의 복(8:11; 참조. 26:29)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겪는 고통과 대조된다(8:12; 참조. 13:42, 50; 22:13; 24:51; 25:30). 인자의 권위는 사죄 선포에서 강조된다(9:1-8). 인자는 하늘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처럼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를 가진다(참조. 단 7:13-14).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권위에 복종하여 메시아의 잔치와 인자의 용서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한다(9:9-13). 선교강화(10장)에서 *omologew*(시인하다)와 *arepmai*(부인하다)는 법정의 용어들로서 전치사 '앞(*emprosqen*)'과 함께 사용되어 하늘(법정)과 지상(법정)을 대조한다(참조. 1 En. 45:1-2; 52:6; 63:5, 7, 9). 이 전치사는 하늘법정에서 재판관과 하늘의회 구성원들 사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된다(참조. 25:32; 단 7:13). 최후의 운명이 선포될 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만 하늘법정에서 인정을 받는다. 선교강화의 끝인 10:40-42은 하늘법정을 상상하게 한다(25:31-46). 땅의 관점에서는 선교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소자들이지만, 예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을 영접하면 상을 받는다.

네 번째 내러티브 단락(11-13장)에서 하늘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대조적인 두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11:25-30; 12:17-21; 13:1-52). 11:26의 '아버지[앞의] 뜻(*eudokia emprosqen sou*, 참조. 6:10; 18:14; 엡 1:5, 9, 11)은 하늘 보좌 앞에 소집된 하늘의회를 상상하게

한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궁정에서 선포된 뜻이다. 하늘에 선재했던 아들은 하늘의 뜻을 전해 주는 점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어린아이들이다. 12:18-21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순종과 겸손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루는 아들의 메시아 사역을 하늘의회 장면으로 알린다(12:18-21; 사 42:1-4). 하늘나라의 비유(13:1-52)에서 비밀은 인생의 이 중 운명에 대한 것이다. 예수를 받아들인 의인들은 하늘의 해처럼 빛날 것이지만(13:43), 반대편에 선 자들은 풀무 불에 던져질 것이다(13:42, 50). 본 강화의 실제 결론인 그물 비유(13:47-50)는 최후심판의 때에 하늘 법정에서 나타날 종말론적인 분리를 보여 준다. 교회 안에는 좋은 자들과 나쁜 자들이 섞여 있으며, 인자와 함께 올 천사들이 악인들을 의인들에게서 분리시켜(13:49; 25:32) 풀무에 내던질 것이다(13:50).

다섯 번째 내러티브 단락(14-18장)의 관심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는 교회의 삶과 운명이다. 하늘의회는 베드로의 결정을 지지한다(16:17-19).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음부에 갇힌 자들을 구출하며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참조. 3 Bar. 11:2). 법을 해석하는 것에 근거하여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권위를 행사했지만(*J.W. 1:110* 이하; 참조. *Ant.* 13.16.2), 하늘의회는 베드로와 에클레시아의 결정에 반응한다는 것이 하늘의 관점이다. 예수님은 하늘법정에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데(16:27-28; 참조. 13:36-43; 19:28; 24:30-31; 25:31-46; *1 En.* 45:3; 51:3; 55:4; 61:8; 62:5; 69:29), 이 장면은 인자의 길에 들어 선 자들을 격려한다. 변화산 사건(17:1-8)의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원래 천상의 존재로서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았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의 모습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미래에 얻을 모습, 곧 하늘의 상이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므로 제자들도 성자의 운명을 따라야 함을 암시한다. 공동체 강화(18:1-35)는 하

늘의회와 교회의 관계를 강조한다. 18:10-14에서 천치사 *emprosqen*과 하늘의회의 모습을 눈여겨보면,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법정의 하나님 앞에 서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늘의 뜻은 교회에서 길을 잃은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교회 구성원이 교회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교회는 하늘의회가 교회의 결정에 반응하고 있음을(두 세 증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임마누엘)을 알아야 한다(18:15-20). 강화는 심판의 주제로 종결되며, 악한 종이 고문하는 자들에게(*toij basanistaij*) 넘겨지는 장면은 최후심판에서 하늘법정의 판결로 악인들이 천사들에게 심판 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참조. 마 8:29의 *basanizw*).³⁵⁾

여섯 번째 내러티브 단락(19-25장)의 주제는 최후심판이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영광의 보좌와 열두 보좌에 앉게 될 장면(19:27-30)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을 알린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결이 선언되면 하늘잔치의 장소와 기쁨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가게 될 장소와 받게 될 형벌과 대조된다(22:1-14). 24:29-31에서 하늘과 관련된 묵시 그림들이 종말론적인 전쟁과 연결된다. 세상의 마지막에 악의 세력들은 괴멸될 것이다. 인자의 깃발이나 신호가 하늘에 보이면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모두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인자는 하늘의회를 하늘군대로 보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을 회복할 것이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야기와 양과 염소의 비유(25:31-46)는 네 개의 강화 마지막 부분(7:21-27; 10:40-42; 13:47-50; 18:23-35; 25:31-46)을 확대한 결정판으로 혼합된 교회의 최후 운명도 포함한다.

일곱 번째 내러티브 단락(26-28장)에서 하늘 표상과 상징성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절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수의 심문 장면(26:57-68)의 핵심은 누가(대제사장과 예수), 어느 법정(유대법정과 하늘

35) David C. Sim, "Angels of Eschatological Punishment in the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tic Traditions and in the Gospel of Matthew," *HTS* 55 (1999), 693-718.

법정)이 권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가야바는 땅의 하늘인 지성소에 권위의 근거를 두지만, 인자는 지성소의 본체인 하늘에서 올 것이다(26:64). 우림과 둠뭇을 가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자가 하늘의 진리를 계시한다. 예수의 신분과 역할이 하늘의 진리이다. 하늘의 궁창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자 목시적 사건들(27:51하-53)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고 나오시자 땅이 진동한다. 구약(예. 사 24:18하-19; 64:1-3)과 유대 목시전승(예. *T. Mos.* 10:3-10; 1 En. 1:4-9)은 하나님이 하늘 또는 거룩한 거처에서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성전의 수평적 구조는 우주의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므로 휘장의 열림은 하늘 궁창의 열림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을 열고 내려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임마누엘) 백부장은 하늘의 진리(하나님의 아들)를 깨닫는다. 부활이야기(28:16-20)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권위를 보증하는 근거인 하늘에서 권세를 받아(참조. 단 7:13-14)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거하려고(임마누엘) 땅으로 내려오신다.

4. 마치는 말

우리는 이제까지 우주의 구조에 대한 마태복음의 사용을 살펴면서 하늘이 신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점에 주목했다. 배경 연구를 마태복음에 적용해서 다음의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늘의회(법정/궁정)의 그림은 하늘과 땅의 상호관계를 알리며, 하늘의 뜻을 전하며,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성을 밝히며, 최후심판을 강조한다. 마태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전치사 *emprosqen*은 하늘의회를 가리키는 힌트다(10:32, 33; 11:26, 18:14; 25:32). 하늘의회는 땅의 교회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땅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한다(16:18-19; 18:18-20).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하늘의 뜻에 순종한 아들/중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다(마 3:17; 17:5; 참조. 12:18-21; 27:54; 사 42:1-4). 하늘은 인생의 운명을 선포

하는 법정이면서 의인들의 보상이 마련되고 있는 곳이다. 인자는 최후심판에서 하늘법정을 주재할 것이며(16:27-28; 25:31-32; 26:64) 하늘의회는 종말론적 전쟁을 위한 군대 역할을 할 것이다(24:29-31). 둘째, 마태복음은 유대 묵시전통의 중심 주제인 '하늘-형벌'의 장소와 '의인-악인의 운명'과의 관계를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고(5:11-12; 6:1-18) 천상의 존재로 변형될 것이다(13:43; 17:2; 참조. 22:11-14). 예수님의 권위를 믿은 자들은 하늘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8:11; 22:11-14).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하늘보좌들에 앉을 것이다(19:28). 하늘에서 의인들이 누리게 될 지고의 행복은 비깅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악인들의 운명과 뚜렷이 대조된다(8:12; 13:42, 50; 22:13; 24:51; 25:30). 하늘법정과 최후심판의 관계는 마태의 다섯 강화의 마지막에 모두 등장하며 양과 염소의 비유(25:31-46)에서 절정에 이른다. 마태는 '모호함'이라는 문학적인 특징을 사용해서 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긴장시킨다(예. 7:21-23; 13:41-42; 22:13; 25:41-46).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심판의 장면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심판을 받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긴장할 것이다. 셋째, 성전의 하늘 상징성을 적용해 보면(9:1-8; 26:64; 27:51-53), 인자와 하늘법정의 권위는 대제사장과 유대법정의 권위 위에 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하늘의 궁창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에 반응하여 하늘에서 회복을 위해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한다(27:51하-53). 마지막으로, 구약과 유대 묵시전승에 나타나는 '하늘의 열림'과 '앞에 서다'와 '앞은 마태의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내러티브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은 사건이 벌어지고(예. 하늘법정), 주인공들(예. 세례요한, 예수, 베드로, 제자들 또는 교회)의 신분을 계시하고, 하늘의 관점을 전해주는 공간적 세팅 역할을 한다. 특히 마태복음에만 있는 본문에서 하늘은 하늘법정과 의인

들의 운명을 위한 영역으로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늘은 마태복음의 서사와 강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며, 분명 저자와 독자들의 공동 언어다.

이와 같이, 필자는 **마태복음의 하늘 이해에 기여한** '페닝톤과 '거트너'와 '심'을 대화 파트너들로 삼았는데, 이들이 배경 연구에서 간과한 부분(예. 하늘의회, 의인을 위한 종말론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늘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으며, 이들이 일부분에 적용한 하늘의 기능을 마태복음을 '전체로' 읽으면서 일곱 서사 부분의 각 주제와 연결해서 분석했다.

<주요어>

우주론, 마태복음, 하늘, 묵시, 유대교, 인생의 운명

<Key words>

Cosmology, Matthew, Heaven, Apocalyptic, Judaism, Destiny

*등록일 2014년 5월 15일, 수정일 2014 8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4 8월 20일

참고문헌

- 강대훈, "마태의 수난 기사(마 26-27장)에 나타난 성전의 하늘 상징성," 「신약연구」 12(2013), 7-27.
- 강대훈, "산상설교에 나타난 하늘의 기능." 「정훈택 교수 퇴임기념논총: 열매로 알리라」.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3.
- 강대훈,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데스'와 '아뷔소스'의 개념과 하늘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약연구」 13 (2014), 183-218.
- 강대훈, "유다서의 우주론," 「신약연구」 12 (2013), 875-899.
- 기민석, "천상의회의 전형적 기술에 대한 관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1 (2005), 15-26.
- 김학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하늘' 가족의 권세와 상과 '하늘나라'", 「신약논단」 14 (2007), 1-37.
- 김학철, "마태공동체의 '땅'과 '하늘' 사이에 '매고 푸는' 권세",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40 (2007), 67-93.
- 김학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마태복음의 하나님 상(像)의 일면", 「신약논단」 15 (2008), 37-67.
-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 (2006), 57-88.
-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Canon&Culture」 13 (2013) 103-130.
- 정훈택,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주기도문 중 첫 세 청원의 상관관계 연구", 「신약연구」 10 (2011), 1-24.
- Adams, Edward., "Graeco-Roman and Ancient Jewish Cosmology," eds., Jonathan T. Pennington and Sean M., *Cosmology and New Testament Theology*, McDonough, London: T & T Clark, 2008, 5-27.
- Bauckham, Richard, *The Fate of the Dead*, Leiden: Brill, 1998.
- Beale, G. K.,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 Collins, J. J., *Apocalypticism in the Dead Sea Scrolls*, London; New York:

- Routledge, 2002.
- Gurtner, Daniel M., *The Torn Veil: Matthew's Exposition of the Death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Houtman, Cornelius., *Der Himmel im Alten Testament: Israels Weltbild und Weltanschauung*, Leiden: Brill, 1993.
- Kline, M. G., "Investiture with the Image of God", *WTJ*40, 1977-1978, 38-62.
- Nickelsburg, George W. E., and VanderKam, James C., *1 Enoc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noch Chapters 37-82*, Minneapolis, Minn.: Fortress Press, 2012.
- Oden, R. A., "Cosmogony, Cosmology," *ABD* Vol. 1., 1:1162-1171.
- Pennington, Jonathan T., *Heaven and Earth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7.
- Pennington, "Heaven, Earth, and a New Genesis: Theological Cosmology in Matthew," in *Cosmology and New Testament Theology*, eds. Jonathan T. Pennington and Sean M. McDonough, London: T & T Clark, 2008. 28-44.
- Pennington, "Dualism in Old Testament Cosmology: Weltbild and Weltanschauung," *SJOT* 18-2, 2004, 260-277.
- Reddish, M. G., "Heaven," *ABD* 3:90-91.
- Robinson, H. W., "The Council of Yahweh," *JTS* 45, 1943. 151-157.
- Sim, David C., *Apocalyptic Eschatology in the Gospel of Matth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Sim, David C., "Angels of Eschatological Punishment in the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tic Traditions and in the Gospel of Matthew," *HTS* 55, 1999, 693-718.
- Walton, J. H.,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ll.: IVP, 2009.

<초록>

마태복음의 우주론

- 하늘 표상과 상징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

강대훈

(총신대학교 강사, 신약학)

본 논문은 우주론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주제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하늘 표상과 상징성을 사용한 것에 제한해서 연구한 것이다. 필자는 **마태복음의 하늘 이해에 기여한 페닝톤과 거트너와 심이 배경 연구에서 간과한 부분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으며, 이들이 일부분에 적용한 하늘의 기능을 마태복음을 '전체로' 읽으면서 일곱 내러티브 단락의 각 주제와 연결해서 분석했다.** 필자는 하늘이 마태와 독자의 공동언어라는 전제 아래 구약과 제2성전기 유대교의 하늘에 대해 연구했다. 하늘은 하늘의회가 모이는 곳이며, 성전은 소유주이며, 대체사장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권위를 부여 받는다. 제2성전기 유대 묵시문헌과 사해문서는 구약과 달리 하늘 세계와 인생의 운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유대 문헌의 시기에 따라 하늘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이 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 상을 받는 장소(주로 하늘)와 형벌의 장소가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생의 이중 운명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점은 마태복음의 우주론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배경이다. 필자는 내러티브 접근을 마태복음 본문을 읽는 방법론으로 선택하고 하늘에 대한 배경 연구 결과를 적용했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사건이 벌어지고, 주인공들의 신분을 계시하고, 하늘의 관점을 전해주는 공간적 영역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늘 표상과 상징성을 각 내러티브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마태복음

구조의 핵심이 되는 다섯 강화는 각각 최후 심판을 주제로 끝을 맺으며, 이 주제는 하늘법정의 표상과 연결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25:31-46)에서 절정을 이룬다.

<Abstract>

Cosmology in Matthew's Gospel:

A Study on Matthew's Use of Heavenly Imagery and Symbolism

Daehoon Kang
(Lecturer, Chongsh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function of cosmology in Mathew's Gospel, focusing on Matthew's use of heavenly imagery and symbolism. I seek to establish the argument that Matthew's language of heaven is not merely a circumlocution for God but that it draws on a Jewish apocalyptic milieu which would have been common-place in Second Temple Judaism, so that it is possible to interpret Matthew's use of the word "heaven" against a background of heaven as a spatial reality in which there is a heavenly court and in which heaven is seen 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estiny of the righteous.

Historical background and narrative approach are my main methods because the Old Testament and Second Temple Jewish texts form historical backgrounds for the understanding of Matthew's heaven (e.g., the heavenly council; the heavenly symbolism of the temple; the juxtaposition of the heavenly realm and the destiny of the righteous; the motif of heaven being opened; the interac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the phrase "before God" in heaven) and because Matthew uses heavenly imagery and sym-

bolism to highlight his main themes in the entire Gospel.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Matthew's distinctive texts and important texts having to do with heaven, exploring their meaning and establishing their role in each narrative section. Matthew uses heavenly imagery and symbolism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his implied readers and describes heaven as a spatial setting for events to reveal God's plan of salvation, the identity of main characters, and the heavenly mysteries like the destiny of humanity. Heaven has a prominent role with special imagery and is associated with such key matters as revelation and judgment; each of Matthew's five discourses ends with the theme of last judgment, which is related to the imagery of the heavenly court which announces the destiny of humanity, and which anticipates the eschatological and paradoxical separation between the sinners and the righteous, culminating in the parable of the sheep and the goats (Matt. 25:31-46).